

전시 EXHIBITION

# 아이 웨이웨이: 인간미래

Ai Weiwei: Defend the Fu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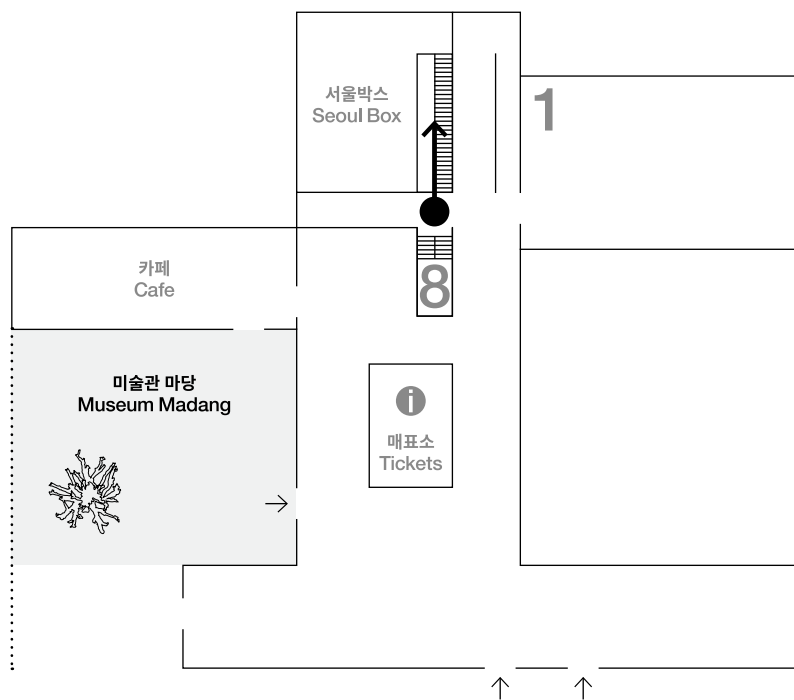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6, 7 전시실, 미술관 마당  
MMCA Seoul  
Gallery 6, 7, Museum Mada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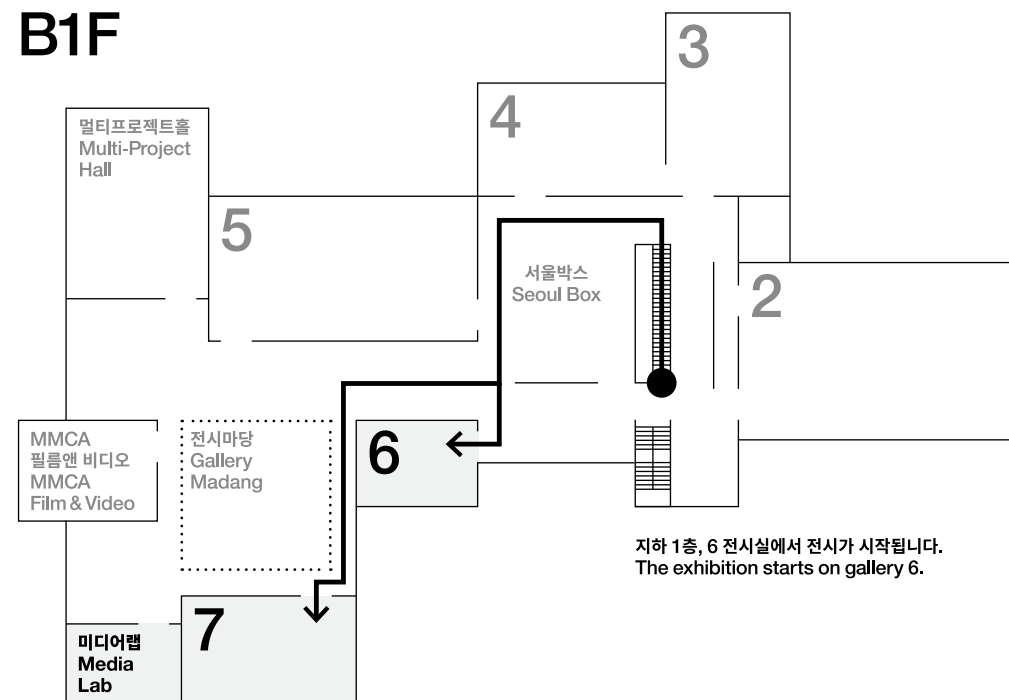
2021.12.11.-2022.4.17.  
[www.mmca.go.kr](http://www.mmca.go.kr)



# 1F



# B1F



아이 웨이웨이 인간미래

«아이 웨이웨이: 인간미래»는 회화, 사진에서부터 영화, 설치, 건축, 공공미술, 전시기획, 출판 등 전 방위적으로 활동하는 아이 웨이웨이(1957-)의 예술세계를 소개한다. 1957년 중국 베이징에서 시인 아이 칭과 가오 잉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문화혁명기에 아버지가 반우파 운동으로 인해 ‘하방’(下放, 중국 문화혁명기에 도시 청년과 지식인들을 농촌으로 보내 농민과 지내게한 정치 운동) 되면서 중국 서부 신장 지역에서 성장했다. 아버지가 완전히 복권된 후 1975년 베이징으로 돌아왔고 1978년 베이징영화학원 애니메이션과에 입학해 1979년 현대미술 그룹 ‘성성화회’에서 활동했다. 1981년 뉴욕으로 건너가 마르셀 뒤샹, 앤디 워홀, 제스퍼 존스 등의 작품을 접하면서 현대미술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확립해 나갔다. 1993년 베이징으로 귀국 이후, 베이징 동쪽 지역 차오창디 예술촌 형성에 참여했고, 헤르조그 & 드 뢰롱의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경기장인 ‘베이징 국가 체육장’(중중 ‘새의 둥지’로도 불린다) 프로젝트에도 참여했다.

2008년 쓰촨 대지진 발생 시 온라인으로 자원 봉사자를 모집하고 ‘시민 조사 단’을 구성하여 총 사상자 수와 희생자 이름을 기록했다. 작가는 중국을 어쩔 수 없이 떠나 2015년부터 유럽에 체재하면서, 주로 ‘난민’을 주제로 한 다양한 작품을 발표하고 있다. 특히 그는 블로그, 트위터,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소통하는 선구적 예술가라는 점에서 특별한 위상을 갖는다. 이번 전시는 사진 연작 ‘원근법 연구, 1995-2011’(2014)를 비롯하여 ‘색을 입힌 화병들’(2015), ‘코카콜라 로고가 있는 신석기 시대 화병’(2015), ‘난민 모티프의 도자기 기둥’(2017) 등의 도자 작품, ‘유리를 이용한 원근법 연구’(2018), ‘검은 상들리에’(2017-2021) 등의 무라노 유리 작품, ‘구명조끼 뿔’(2019), ‘빨래방’(2016), ‘나무’(2015) 등의 대형 설치작품, ‘살아 있는 자’(2020), ‘로hing야’(2021) 등 11편의 영상 등 총 126점을 소개한다.

전시 제목 ‘인간미래’는 그의 예술적 화두인 ‘인간’과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를 결합한 것이다. 아이 웨이웨이의 삶과 예술은 존엄한 인간으로서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며 기쁨과 분노를 표현할 수 있는 삶을 누려야 하며 또 그런 삶을 지금부터 앞으로 올 미래 세대까지 모든 타인들이 함께 누리도록 행동해야 한다고 말한다. 인권을 다룬 인류사의 중요 발언들을 모은 작품 ‘인용문’(2019)에서 소크라테스는 “나는 아테네인도 아니요, 그리스인도 아니다. 나는 세계의 시민이다.”라고 말했다. 정더전의 도자마늘부터 베니스 무라노 섬의 유리 공방 등에서 찬란했던 과거의 문화적 유산을 현재로 연결하고, 쓰촨 대지진 현장과 그리스 이도메니 섬에서 타자라 나/우리 사이를 연결하여 공감과 연대의 공동체를 확장시켜 왔다. 대화하며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분노하는 것, 그것이 아이 웨이웨이가 추구하는 삶의 의미이자 예술의 성취이다. 아이 웨이웨이의 작품을 만나는 이번 전시가 그의 시간과 공간 속으로 함께 걷는 여행이 되기를 바란다.

‘빨래방’, 2016, 행거 12개, 옷걸이에 걸린 옷 579벌, 신발 32짝, 가변설치.  
아이 웨이웨이 스튜디오, 리손갤러리, 베를린 노이거리 엠슈나이더 갤러리 제공.  
사진: 아이 웨이웨이 스튜디오 ©아이 웨이웨이 스튜디오

여섯 개의 키워드는 래리 와르시가 아이 웨이웨이의 각종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한 발언을 선별한 책 『아이 웨이웨이-주의』(2012)에서 따온 것이다. 주제에 따라 작품을 소개하지만 사실 이 키워드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거나 중첩되며, 작품도 하나 이상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

Ai Weiwei Defend the Future

*Ai Weiwei: Defend the Future* brings together a selection of works from the oeuvre of Ai Weiwei (1957-), ranging from painting and photography to film, installation, architecture, public art, curated works, and publications. Born in Beijing, China, in 1957, his parents were the poets Ai Qing, and Gao Ying, and he grew up in Xinjiang, in the western part of China, as his father was forced by the Chinese communist government to work in political exile since the Anti-Rightist Campaign. He came back to Beijing in 1975, after his father was fully rehabilitated. He enrolled in the Beijing Film Academy, majoring in animation, in 1978. It was here that he became actively involved in the “Stars” group, one of China’s earliest avant-garde art collectives, in 1979. He then went to New York in 1981, where he encountered works by Marcel Duchamp, Andy Warhol, and Jasper Johns, among others, leading him to establish his own perspective on contemporary art. After returning to Beijing in 1993, he initiated formation of the Caochangdi Art District in the eastern part of Beijing and served as an artistic consultant for the Beijing National Stadium (often called the “Bird’s Nest”), designed by the Herzog & de Meuron architecture firm, in 2007 prior to the Beijing Olympics.

As poorly-constructed school buildings collapsed during the Sichuan earthquake in 2008, Ai recruited volunteers online and formed a Citizens’ Investigation team to document the total number of casualties and the names of the victims. Since he was forced to leave China and moved to Europe in 2015, he has created wide-ranging works on the theme of “refugees.” He is uniquely positioned as a pioneering artist who is able to interact with people by fully utilizing media of the digital era - blogs, Twitter, YouTube, and Instagram. In this exhibition, a total of 126 works of Ai are presented: his photography series *Study of Perspective 1995-2011* (2014); pottery works such as *Colored Vases* (2015), *Neolithic Vase with Coca-Cola Logo* (2015), and *Porcelain Pillar with Refugee Motif* (2017); Murano glass works, including *Study*

*of Perspective in Glass* (2018) and *Black Chandelier* (2017-2021); large installations, including *Life Vest Snake* (2019), *Laundromat* (2016), and *Tree* (2015); and 11 video works, including *Vivos* (2020) and *Rohingya*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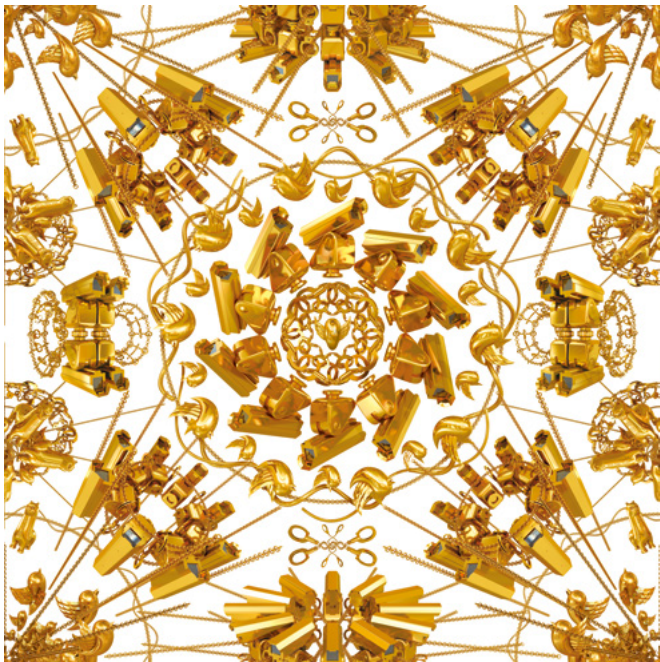
The Korean title of the “Defend the Future” exhibition, which is literally translated as “The Future of Humans” in Korean, is a combination of “humans,” which tops Ai Weiwei’s artistic agenda, and “future,” one of his artistic pursuits. Ai’s life and art express that we, as dignified humans, must be able to live a life in which we can talk freely with one another, express joy and anger, and share what we have with future generations. In *Quotes* (2019), a collection of major comments made throughout human history on the theme of human rights, Socrates stated, “I am not an Athenian or a Greek, but a citizen of the world.” Through such works, Ai has connected magnificent cultural heritages of the past, such as those from Jingdezhen ceramic village and Murano Island, Venice, to the present times and brought public attention to the site of the Sichuan earthquake and Idomeni Island in Greece, thereby spreading empathy and solidarity around the world. This exhibition will hopefully take viewers on a journey into the time and space of Ai’s world.

*Laundromat*, 2016, 12 clothes racks, 579 clothes on cloth hangers and 32 shoes, dimensions variable. Courtesy of Ai Weiwei Studio, Lisson Gallery and neugerriemschneider, Berlin. Photograph by Ai Weiwei Studio ©Ai Weiwei Studio

The six keywords are derived from *Weiwei-isms: Ai Weiwei* (2012), a book of collection of Ai Weiwei’s quotes online and offline edited by Larry Warsh. His artworks are presented based on their themes, but the keyword of Ai Weiwei-isms could be interpreted in more than one perspective, while being closely aligned or overlapping.

“표현의 자유”는 인간다운 삶의 필수 조건으로서 초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진 주제이다. 아이 웨이웨이는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고 확장하는 것이 예술가로서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할 만큼 표현의 자유를 중요하게 다뤘었다. <라마처럼 보이지만 사실 알파카인 동물>(2015)은 표현의 자유와 감시라는 주제로 한 작품이다.

“Freedom of Expression” is a theme carried on from the beginning of his career till now as an essential prerequisite of a humane lifestyle. Ai Weiwei highly considered freedom of expression to the point of expressing his thoughts, saying, “I think it's a responsibility for any artist to protect freedom of expression and to use any way to extend this power.” *The Animal that Looks like a Llama but is Really an Alpaca* (2015) deals with motifs related to issues of free speech and surveill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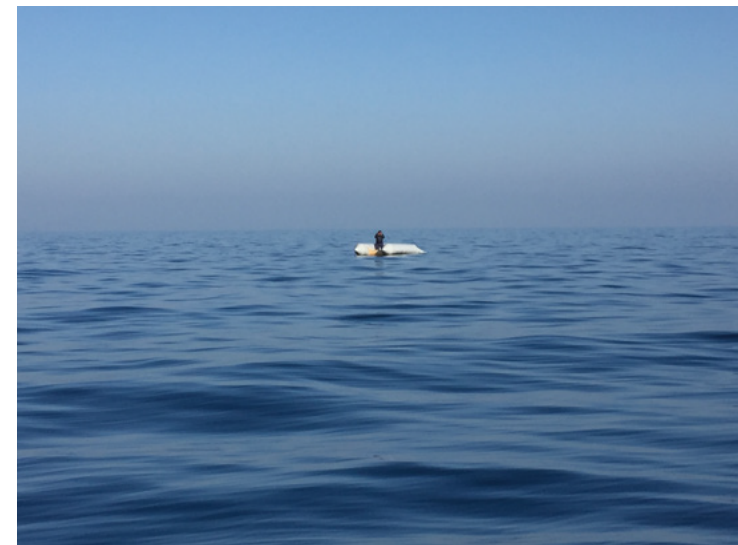


<라마처럼 보이지만 사실 알파카인 동물>, 2015, 벽지설치, 컬러 프린트, 가변설치.  
아이 웨이웨이 스튜디오, 리슨 갤러리,  
베를린 노이거리엄슈나이더 제공.  
사진: 아이 웨이웨이 스튜디오 ©아이 웨이웨이 스튜디오

*The Animal That Looks Like a Llama But is Really an Alpaca*, 2015, wallpaper installation, color prints, dimensions variable.  
Courtesy of Ai Weiwei Studio, Lisson Gallery and neugerriemschneider, Berlin.  
Photograph by Ai Weiwei Studio ©Ai Weiwei Studio

아이 웨이웨이는 문제 상황을 개선하고 더 나은 세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아이 웨이웨이는 실제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 곳을 직접 찾고, 진실을 알리고, 변화를 촉구했다. <구명조끼 뱀>(2019), <빨래방>(2016), <부유>(2016), <유랑하는 사람들>(2017) 등은 난민의 상황에 대해 국제 사회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목적을 두었다. 작품을 전시하고 소개하는 방식에도 미술관 전시와 같은 전통적인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다. 온라인 영상 플랫폼 유튜브와 비메오에서의 영상 공개 및 대여 등 더 많은 관객 결으로 다가갈 수 있는 길을 시도해왔다.

Ai Weiwei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taking action to improve problematic circumstances and make a better world. Ai Weiwei himself visited sites where social problems occurred, declared truths and advocated for making changes. *Life Vest Snake* (2019), *Laundromat* (2016), *Floating* (2016) and *Human Flow* (2017), etc. are intended to arouse interest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n the refugee situations. He is not constrained by conventional ways of museum shows upon curating and showcasing his works. He has attempted to take a closer step to more and more people by releasing or leasing his works on YouTube and Vimeo.



<부유>, 2016, 단채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 비디오 3부작 #1: 4분 8초, #2: 3분 44초, #3: 9분 40초. 영상 스틸.  
아이 웨이웨이 스튜디오 제공.  
사진: 아이 웨이웨이 스튜디오 ©아이 웨이웨이 스튜디오

*Floating*, 2016, single-channel video, color, sound, series of 3 videos #1: 4min 8sec, #2: 3min 44sec, #3: 9min 40sec. Still from *Floating*.  
Courtesy of Ai Weiwei Studio.  
Photograph by Ai Weiwei Studio ©Ai Weiwei Studio



《빨래방》, 2016, 행거 12개, 옷걸이에 걸린 옷 579벌, 신발 32짝, 가변설치. 《빨래방》의 제작 과정.  
아이 웨이웨이 스튜디오, 리손갤러리, 베를린 노이거리엠슈나이더 갤러리 제공.  
사진: 아이 웨이웨이 스튜디오 ©아이 웨이웨이 스튜디오

*Laundromat*, 2016, 12016, 12 clothes racks, 579 clothes on cloth hangers and 32 shoes, dimensions variable. Production view of *Laundromat*. Courtesy of Ai Weiwei Studio, Lisson Gallery and neuger-riemerschneider, Berlin. Photograph by Ai Weiwei Studio ©Ai Weiwei Studio

“정부, 권력, 그리고 도덕적 선택”은 특히 목소리를 내지 못한 소수와 연대하고,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려는 작가의 관심이 담겨 있다. ‘살아 있는 자’(2020)와 ‘자기 꽃이 담긴 자전거 바구니’(2014) 등에서 건강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와 소통을 요구하고 개선하려는 적극적인 태도가 윤리적이면서도 미학적 태도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멕시코시티에서 부패한 경찰로 인해 43명의 교육대학생이 실종된 사건을 추적하는 ‘살아 있는 자’는 지구 반대편의 사건이지만 쉬 보아넘길 수 없다.

“Government, Power and Making Moral Choice” embodies Ai’s interest in forging solidarity and forming sound relationships with minorities whose voices have not been heard well enough. It can be identified that his proactive attitude to demand a sound and transparent information disclosure and communication could turn ethical and aesthetic in *Vivos* (2020) and *Bicycle Basket with Flower in Porcelain* (2014), etc. *Vivos*, in particular, depicts a poignant incidence on the opposite side of the earth, which traces a case where 43 students from a teachers’ college disappeared, which broadened fury at corrupt local police officials in Mexico City.



‘살아 있는 자’, 2020, 단채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 1시간 52분, 영상 스틸. 아이 웨이웨이 스튜디오 제공.  
사진: 아이 웨이웨이 스튜디오 ©아이 웨이웨이 스튜디오

*Vivos*, 2020, single-channel video, color, sound, 1h 52min. Still from *Vivos*. Courtesy of Ai Weiwei Studio. Photograph by Ai Weiwei Studio ©Ai Weiwei Studio

“디지털 세계”에서는 작가가 자신의 활동을 소개하고 연대해 나가는 데 주요한 플랫폼이 되는 디지털 영역들에서의 실천을 소개한다. 한스 울리히 오브리스트가 작가의 블로그를 ‘디지털 시대의 사회적 조각’이라고 표현할 만큼, 아이 웨이웨이는 온라인 공간 속에서 생각을 정리하고 발표하는 데 많은 비중을 두었다. 지금은 폐쇄된 블로그부터 지금 이 시각에도 활발히 업데이트되는 작가의 소셜미디어 등과 관련된 도서가 소개된다. 2009년 중국 청두에서 촬영한 ‘조명’(2009)은 아이 웨이웨이의 셀프 중 자유와 저항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다. 아이 웨이웨이는 5월 12일 쓰촨 대지진 발생 시 정부 조사의 투명성을 강력하게 요구한 주요 활동가였다. 2009년 8월 9일 새벽 3시, 아이 웨이웨이는 호텔에 들어온 경찰에게 구타당했다. 경찰이 그를 호텔 엘리베이터로 연행하던 중에 거울에 비친 모습을 포착했다.

In “The Digital World,” Ai introduces his actions in digital domains as key platforms for him to present his works and unite with people. Hans Ulrich Obrist referred to Ai’s blog as the ‘social sculpture in the digital era,’ implying how Ai has put a great weight on the online space in compiling and presenting his thoughts. The theme brings together his currently blocked blog and books on his frequently updated postings – event at this time in point - on social media. Taken in Chengdu, China, in 2009, *Illumination* (2009) has become an iconic Ai Weiwei selfie, one embodying freedom and resistance. Ai was the leading activist calling for transparency in the investigations of fatalities during the Sichuan earthquake on May 12. At three o’clock in the morning of August 9, 2009, police banged on Ai’s hotel room door, woke him up, and beat him. As the police were escorting Ai to the hotel elevator, he defiantly snapped a selfie of his reflection in the mirrored walls of the elevator.



‘조명’, 2009, 벽지설치, 컬러 프린트, 가변설치. 아이 웨이웨이 스튜디오, 리슨 갤러리, 베를린 노이거리엠슈나이더 제공.  
사진: 아이 웨이웨이 스튜디오 ©아이 웨이웨이 스튜디오

*Illumination*, 2009, wallpaper installation, color prints, dimensions variable. Courtesy of Ai Weiwei Studio, Lisson Gallery and neugerriemschneider, Berlin. Photograph by Ai Weiwei Studio ©Ai Weiwei Studio

## 역사, 역사적 순간, 미래

“역사, 역사적 순간, 미래”에서는 중국 고대 유물의 형상부터 정더전의 도자기, 무라노의 유리 공방 등 인류의 역사와 문화를 조망하고 성찰하는 작가의 모습이 소개된다. 신석기 시대 도자기에 현대식 페인트를 입히거나 코카콜라 로고를 그려 넣은 <색을 입힌 화병들>(2015)과 <코카콜라 로고가 있는 신석기 시대 화병>(2015)은 역사적 유물을 훼손하면서 동시에 현대적 예술품으로 재탄생시킨다. 역사와 전통을 동시대의 삶에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지, 또 과거가 될 현재에서 어떤 미래를 열어갈지에 대한 작가의 고민을 150시간 동안 상영되는 베이징 시내 전체를 기록한 <2003년 베이징>(2003)에서 느껴볼 수 있다.

## History, the Historical Moment, and the Future

“History, the Historical Moment, and the Future” touches on how he has shed a light and contemplates on the history and culture of the mankind including the figures of Chinese ancient legacy, potteries from Jingdezhen and glass studio in Murano. *Colored Vases* (2015) and *Neolithic Vase with Coca-Cola Logo* (2015) where modern-style paints are added and the logo of Coca-Cola is ingrained on the Neolithic ceramics have been reborn as contemporary artworks by damaging historical relics. His thoughts over how to strike a balance between the history and traditions, and the contemporary life, and what kind of future would unfold in today's world which would soon become the past are found in *Beijing 2003* (2003) which is a documentary of a 150-hour record of the entire city of Beijing.



<2003년 베이징>, 2003, 단채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 150시간. 영상 스틸. 아이 웨이웨이 스튜디오 제공.  
사진: 아이 웨이웨이 스튜디오 ©아이 웨이웨이 스튜디오

*Beijing 2003*, 2003, single-channel video, color, sound, 150h. Still from *Beijing 2003*. Courtesy of Ai Weiwei Studio.  
Photograph by Ai Weiwei Studio ©Ai Weiwei Studio

## 개인적 사유

“개인적 사유”는 삶에 대한 작가의 성찰을 다룬다. 고대 무덤에서 발굴된 듯한 유골 형상을 연결한 <검은 상들리에>(2017~2021), <유해>(2015)와 같은 작품에서 삶과 죽음의 의미를 생각하게 된다. 아이 웨이웨이의 작품은 역사와 개인, 삶과 죽음,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성찰을 담았다.

## Personal Reflection

“Personal Reflection” reminds of his works on his in-depth reflection on his life. His works such as *Black Chandelier* (2017~2021) and *Remains* (2015) where images of remains seemingly excavated from ancient tombs trigger thoughts over the meanings of life and death. His works embody reflection on the history and individuals, life and death, the past and the present, and the fu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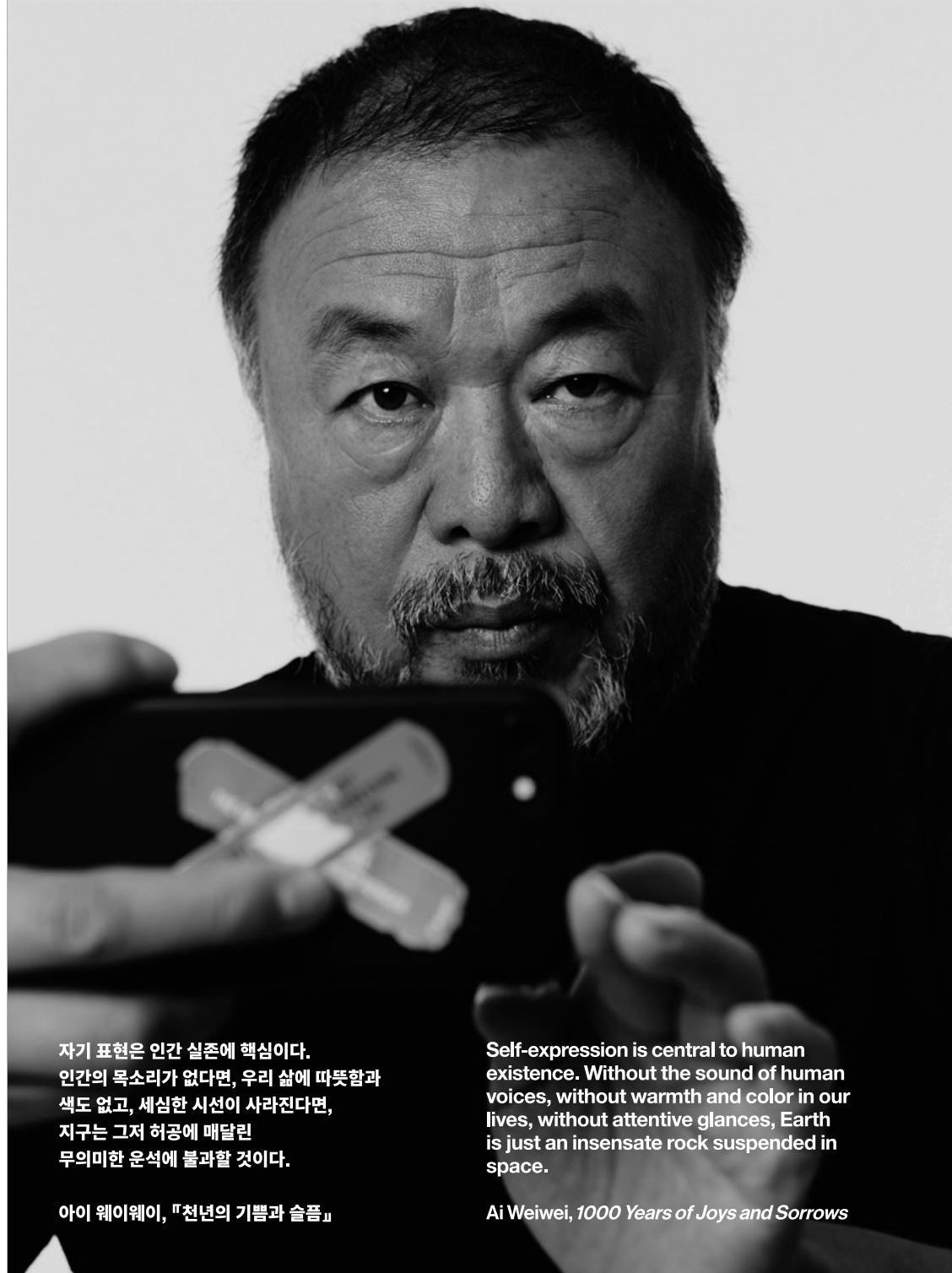
<유해>, 2015, 자기, 1~10×4.5~29×2~14cm (13). 아이 웨이웨이 스튜디오, 리슨갤러리, 베를린 노이거리엠슈나이더 갤러리 제공.  
사진: 아이 웨이웨이 스튜디오 ©아이 웨이웨이 스튜디오

*Remains*, 2015, porcelain, 1~10×4.5~29×2~14cm (13). Courtesy of Ai Weiwei Studio, Lisson Gallery and neugerriemschneider, Berlin.  
Photograph by Ai Weiwei Studio ©Ai Weiwei Studio



〈검은 상들리에〉, 2017-2021, 무라노 유리,  
지름185×240cm. 아이 웨이웨이 스튜디오, 리슨갤러리,  
베를린 노이거리엠티슈나이더 갤러리 제공.  
무라노 베렌고 공방에서 제작.  
사진: 아이 웨이웨이 스튜디오 ©아이 웨이웨이 스튜디오

*Black Chandelier*, 2017-2021, Murano glass,  
Ø185×240cm. Courtesy of Ai Weiwei Studio,  
Lisson Gallery and neugerriemschneider, Berlin.  
Produced in Murano by Berengo Studio.  
Photograph by Ai Weiwei Studio ©Ai Weiwei Studio



자기 표현은 인간 실존에 핵심이다.  
인간의 목소리가 없다면, 우리 삶에 따뜻함과  
색도 없고, 세심한 시선이 사라진다면,  
지구는 그저 허공에 매달린  
무의미한 운석에 불과할 것이다.

아이 웨이웨이, 『천년의 기쁨과 슬픔』

Self-expression is central to human  
existence. Without the sound of human  
voices, without warmth and color in our  
lives, without attentive glances, Earth  
is just an insensate rock suspended in  
space.

Ai Weiwei, *1000 Years of Joys and Sorrows*

### 관람시간

월, 화, 목, 금, 일: 오전 10시-오후 6시  
수, 토: 오전 10시-오후 9시

### 입장료

서울관 통합 관람권 4,000원  
수, 토 야간개장 시 무료관람(오후 6시-9시)  
대학생 및 만 24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 무료

### 주차

운영시간(매일) 오전 8시-오후 11시  
시간당 3,000원

### 주최

국립현대미술관

###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03062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30(소격동 165)  
+82 2 3701 9500

### Opening Hours

Mon, Tue, Thu, Fri, Sun: 10:00-18:00  
Wed, Sat: 10:00-21:00

### Admission Fee

Entrance Ticket: 4,000won  
Under 24 or over 65: Free  
Every Wed & Sat 18:00-21:00: Free

### Parking

Daily Hours: 08:00-23:00  
3,000won per hour

### Organized by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eoul

(03062) 30, Samcheong-ro, Jongno-gu, Seoul,  
Korea(165, Sogyeok-dong)  
+82 2 3701 9500

[www.mmca.go.kr](http://www.mmca.go.kr)  
[twitter.com/mmcakorea](https://twitter.com/mmcakorea)  
[facebook.com/mmcakorea](https://facebook.com/mmcakorea)  
[instagram.com/mmcakorea](https://instagram.com/mmcakorea)  
[youtube.com/mmcakorea](https://youtube.com/mmcakorea)  
[tv.naver.com/mmca](https://tv.naver.com/mmca)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eoul